

# 민주, 내주 후쿠시마 방문 추진... “오염수 방류 문제 확인해야”

원전 시찰 및 현지 어민 면담 등 추진  
오염수 관련 日 대사관 항의 방문 예정  
민주, 대일 외교 총공세...국조·집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내주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곤·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에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도쿄 전력을 방문하고 후쿠시마 원전 주변 현장을 시찰하는 등의 일정을 계획 중이다. 후쿠시마 현지 어민과 기초의원들을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응단은 오는 5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대응단장인 위 의원은 통화에서 “(후쿠시마 현지에서) 일본 수산인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를 만날 예정”이라며 “항의 차원에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할 계획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교도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접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재차 해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장외 집회에 참석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정부 대일 외교 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일본 오염수, 수산물, 독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과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심각하게 손상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 내부가 공개됐다”며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노출돼 부식과 변형이 심했고, 붕괴와 고농도 오염수의 유출 위험도 제기됐다”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이슬기자

## 화순군의회,尹 정부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무력화하는 참사”



화순군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종욱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자유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언급

하며,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결정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동의, 일본의 진정된 사과, 가해 기업의 적절한 배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의문이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류종욱 의원은 화순군 앵남리에 안장된 지강 양한목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 더불어 민주당 “경제위기에 국민 삶 위협尹 정부, 해법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인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어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겨우 600억 원짜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라며 “나라 경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무역수지가 6조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 반년 내내 줄어들었고 무역적자

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신호는 명확한데, 윤 정부는 어떤 솔루션도 보여주지 않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재정도 위기다.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나 덜 걷혔다고 한다. 이대로면 올 한해만 20조 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서 “경제위기에는 국가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지만, 그럴 재정까지 바닥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